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111/200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교에 나가지 않으면 나는 5시에 ㉠ 컨베이어 앞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선생님은 버스 정류장에서 내일은 꼭 학교에 나오라고 한다.

“우선 학교에 나와서 얘기하자.”

버스에 올라탄 선생님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든다. 선생님의 손 뒤로 공장 굴뚝이 울퉁울퉁하다. 처음으로 공장 속에서 사람을 만난 것 같다. 버스가 떠난 자리에 열일곱의 나, 우두커니 서 있다. 선생님의 손길이 남아 있는 내 어깨를 내 손으로 만져 보며.

다음날 교무실로 나를 부른 선생님은 내게 반성문을 써 오라 한다.

“하고 싶은 말 다 써서 사흘 후에 가져와 봐.”

㉡ 반성문을 쓰기 위해 학교 앞 문방구에서 대학 노트를 한 권 산다. 지난날, 노조 지부장에게 왜 외사촌과 내가 학교에 가야만 하는가를 뭐라구 뭐라구 적었듯이 이제 선생님에게 학교 가기 싫은 이유를 뭐라구 뭐라구 적는데 어느 참에서 마음속의 이야기들이 왈칵 쏟아져 나온다. 열일곱의 나, 쓴다. 내가 생각한 도시 생활이란 이런 것이 아니었으며, 내가 생각한 학교 생활도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나는 주산 놓기도 싫고 부기책도 싫으며 지금은 오로지 마음속에 남동생 생각뿐으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애와 함께 살고 싶다고. 반성문은 노트 삼분의 일은 되게 길어진다.

[A] 반성문을 다 읽은 선생님이 말한다.

“너 소설을 써 보는 게 어떻겠냐?”

내게 떨어진 소설이라는 말. 그때 처음 들었다. 소설을 써 보라는 말.

그는 다시 말한다.

“㉢ 주산 놓기 싫으면 안 놓아도 좋다. 학교에만 나와. 내가 다른 선생들에게 다 말해 놓겠어. 뭘 하든 니가 하고 싶은 걸 하거라. 대신 학교는 빠지지 말아야 돼.”

그는 내게 한 권의 책을 건네준다.

“내가 요즘 최고로 잘 읽은 소설이다.”

표지에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써어 있다.

(중략)

최홍이 선생님. 이후 나는 그 선생님을 보러 학교에 간다. 어색한 이향*으로 마음에 가뒤했던 그리움들이 최홍이 선생님을 향해 방향을 돌린다. 열일곱의 나, 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가지고 다닌다. 어디서나 난쟁이가 쏘아

[B] 올린 작은 공을 읽는다. 다 외울 지경이다. 희재언니가 무슨 책이냐고 묻는다.

“소설책.”

소설책? 한번 반문해 볼 뿐 관심 없다는 듯이 희재언니가 고개를 떨군다. 최홍이 선생님이 마음 안으로 가득 들어찬다. 정말 주산을 놓지 않아도 주산 선생님은 그냥 지나간다. 부기 노트에 ㉣ 대차대조표를 그리지 않아도 부기 선생은 탓하지 않는다.

주산 시간에 국어 노트 뒷장을 펴고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옮겨 본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옮겨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옮겼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옮기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옮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C]

……이제 열일곱의 나는 컨베이어 위에서도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옮기고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고.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켜왔기 때문이다,고.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도 같았다,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고.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고.

그가 소설책을 써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 대신 시를 써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으면 나는 시인을 꿈꾸었을 것이다. 그랬었다. 나는 꿈이 필요했었다. 내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 큰 오빠의 가발을 담담하게 빗질하기 위해서, ㉤ 공장 굴뚝의 연기를 참아 낼 수 있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소설은 그렇게 내게로 왔다.

십이월 중순이 지날 때까지 나는 한경신 선생이 보낸 편지를 가방에 넣고 다녔다. 가끔 편지를 꺼내 전화는 오후 5시 30분 이후부터 9시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대목을 읽어 보곤 했다. 842-xxxx. 몇 번 편지를 꺼내 읽고 다시 넣고 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끝내 전화하지 못했다. 시간은 자꾸 흘러 한경신 선생이 학교에 왔으면 하는 기간인 12월 초와 중순을 지나갔다. 이제는 방학을 했겠구나, 싶었을 때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서랍에 넣으면서 그 학교를 떠난 햇수를 헤아려 봤다. 떠난 지 십삼 년이다. 이제는 그때의 일들이 나에게서 객관화가 되어 있으려니 했다.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을 땐 나는 그 시절을 다 극복한 것도 같았다. 그래서 그 시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D] 자세히 써 보기로 했다. 그때의 기억을 복원시켜 내 말문을 띄워 보고 내 인생의 폐문 앞에서 끊겨 버린 내 발자국을 연결시켜 줘 보기로.

- 신경숙, 외딴 방 -

*이항: 고향을 떠남.

23. ㉠~㉣에 대한 '나'의 심리적 태도가 다른 하나는? [1점]

- ① ㉠ ② ㉡ ③ ㉢
- ④ ㉣ ⑤ ㉤

24. 다음은 작가가 남긴 창작 노트의 일부이다. 이 노트의 내용이 [A], [B]에 실현된 양상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시제의 변화 ㉠
- 문단 나누기의 효과? ㉡
- 간결한 문장 위주로 쓸 것 ㉢
- '나'를 부르는 방식에 변화를 줄 것 ㉣
- 대화보다는 심리 묘사 위주로 ㉤

- ① ㉠은 [A]에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이야기 전개 속도를 높이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 ② ㉡는 [A]에서 문단 사이에 여백을 주어 인과 관계를 명료화 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 ③ ㉢는 [B]에서 간결한 문장을 주로 사용하여 과거를 담담한 어조로 서술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 ④ ㉣는 [B]에서 서술자가 스스로를 가리키는 방식을 달리하여 내적 분열을 강조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 ⑤ ㉤는 [B]에서 대화를 최소화하여 사건의 긴장감을 고조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25.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고단한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 ② '나'가 소설 쓰기를 배워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 ③ '나'가 창작의 어려움을 깨달아 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나'가 소설을 옮겨 적으며 스스로 위안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⑤ '나'가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 대해 보이는 애착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보여 준다.

26. [D]는 작품 창작의 동기를 작품에 직접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서 [D]와 성격이 유사한 것은?

<보 기>

목중: 오랜만에 나왔으니 예전에 하던 소리나 한번 해 보자. 어어으 아-

음중: (뒤에서 달려 나와 탁 치며) 야, 이놈아!

목중: 이크, 이게 웬 일이나. 어느 광대 놈이 나오자마자 사람부터 쳐.①

음중: 송아지 풀 뜯어 먹고 울 듯이 '어어으 아' 하면서 나왔다니 거 무슨 말이야?②

목중: 내가 나오기는 부모 배 밖에 이제 나왔다고 한 것이 아니라 놀이판에 나오길 이제 나왔단 말이야.③

음중: 옳지. 그럼 우리 여기 모인 양반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받게 제대로 놀아 보자.④

목중: 너 그러나 저러나 그 쓴 게 뭐냐?

음중: 쓰긴 내가 뭘 써. 일수(日收)를 써 월수(月收)를 써?⑤

- 양주별산대놀이 개작 -